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하 제일의 온천  
 도고온천. 그 상징적인 건물인 도고온천 본관은 1894  
 년에 지어진 목조 3층 건물로,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 안에는 공중목욕탕과 휴게실  
 등이 있으며 매일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도고온천 본관



아스카노유



죽욕탕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발의 피로가  
 풀린다고 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죽욕탕.  
 도고에는 역 앞 광장에 있는 호쥬엔을  
 비롯하여 몇몇 곳의 료칸과 호텔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관광



마쓰야마성

성하도시(城下町) 마쓰야마의 상징. 해발  
 132m의 가스야마 산 정상에 있는  
 마쓰야마성에는 성을 배경으로 왕벚나무가  
 만발하여 아름다운 일본의 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천수각에서는 마쓰야마 시내와 세토  
 내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옛날 그대로의 거리 풍경이 지금도  
 남아 있는 우치코. 완만한 비탈길을  
 따라 예로부터 목랍(표백한 생랍)의  
 생산으로 번영했던 상가들이 약  
 600m에 걸쳐 늘어서 있다. 1916  
 년에 지어진 본격적인 가부키 극장  
 우치코자리는 지금도 연극이나 콘서트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우치코자



우치코 거리



봇짱열차

마쓰야마성 아래를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옛  
 모습 그대로의 노면전차. 일본 최초의 경편 철도로서  
 188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운행되고 있었던 것이  
 2001년에 복원되었다. 이름의 유래는 마쓰야마를 무대로  
 한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봇짱(도련님)'에서 따왔다.

## 금류체험



오시마 섬의 시타다미항을 출발하여 돌아오는  
 배로,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하는 물론이고 세계  
 최초의 3연속 현수교인 구루시마 해협대교와  
 일본 제일의 해상도시인 이마바리 하토하마만의  
 조선소들을 약 40분 동안 돌아볼 수 있다.

에히메현과 히로시마현을 9개의 다리로 잇고  
 있는 세토나이 시마나미해도는 총 연장길이  
 약 80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세토 내해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다.

시마나미해도 사이클링



## 체험



과일따기 체험

과일마을로 유명한  
 우치코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재배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수많은  
 관광농원에서는 계절에  
 따라 딸기와 복숭아, 배,  
 포도, 사과, 감과 같은  
 과일따기를 즐길 수 있다.

17세기 중기 마쓰야마의 영주가 나가사키에서  
 제조법을 가지고 왔다고 전해지는 과자. 카스테라의  
 구운 면을 안쪽으로 하고 팔소를 소용돌이 모양으로  
 말아 넣은 것으로 유자의  
 독특한 풍미와 촉촉한  
 맛이 특징이다.

타르트



세토나이의 온난한 기후 속에 자라서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곶 생산지로 유명한 에히메현. 곶은  
 물론이고 곶 과즙을 100% 이용한 감귤쥬스를  
 비롯하여 지역 한정 쥬스와 젤리 등도 인기가  
 있다.

곶



도베야키 도자기

도베야키 도자기는 백자에 쪽빛으로 그려진 그림과  
 두툼한 두께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미술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식기 등 일상생활용 그릇으로  
 애용되어 왔다.

## 특산품

사쿠라이 칠기



이마바리시의 타월 생산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일본  
 제일을 자랑한다. 생산지인  
 만큼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 큰 매력으로  
 증답품으로 인기가 있다.

타월



진주

리아스식 해안의  
 잔잔한 우와카이  
 바다에서 양식된  
 진주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일본 굴지의  
 품질을 자랑하며,  
 목걸이와 반지, 브로치,  
 귀고리 등 액세서리로  
 가공된 제품은 특히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

